



흑서기 돼지사양관리

탁태영
(축산시험장 양돈과장)

금년도의 흑서는 50년만에 온 더위로서 우리 양돈농가들에게는 괴로운 여름철이다. 더구나 돼지들은 마지 못해 숨을 헐떡이는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

돼지는 성장이 빠르고 체표면적이 작고 체표면에 혈관 분포도 적으며 몸 전체가 두꺼운 피하지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생산된 열을 발산할 수 있는 땀샘도 거의 없어 흑서기 돼지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

지난 7월 중순에 축산시험장에서는 현지 양돈농가를 방문하여 흑서기 대책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갑작스런 고온과 가뭄의

지속으로 양돈농가에서는 사전 대비가 부족하였고,

2. 기존 돈사의 시설이 간이식(보온덮개)인 경우 천장이 낮고 창문이 작아 폭염에 대비한 시설개선이 곤란하고,

3. 일부 돈사위치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통풍조건이 나쁜 곳에 있으며,

4. 송풍기, 환풍기 등의 품귀 현상으로 구입이 곤란하여 강제송풍의 개념은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5. 돈사시설에 비하여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능력은 고능력 이어서 열악한 사육시설에서는 더욱 피해가 많았으며,

6. 평상시 기온상태 기준으로 돈방당 돼지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있어서 폐사두수가 증가하고 있었고,

7. 일부 농가에서는 현재는 송풍 및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하고 싶으나 예년에 없었던 혹서이므로 시설투자시 필요없는 투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참아 보려는 농가도 있었고,

8. 사료섭취량 감소에 의한 발육지연 및 종돈에서 수태율 및 산자수 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혹서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요령으로 사양관리를 하여야 한다.

66

무엇보다도 돈사내 온도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한 바, 돈사내 송풍장치와 안개분무시설을 한다든지 돈사 지붕 위에 스프링클러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16mm PVC관을 이용하여 15cm 간격으로 3mm의 직경으로 양쪽으로 구멍을 내어 지붕 옹마루에 설치후 수도관과 연결하여 태양열에 의한 열전도를 막아 주는 응급조치가 필요하겠다.

99

1. 모돈관리는

- 고열량 사료급여로 생산성 유지.
- 급사기와 사료탱크내 청소 철저로 사료부패 방지.
- 돈사내 통로나 돼지몸에 물을 뿌려 줌.
- 사료구입은 16일 이내 급여할 수 있는 소요량만 확보.
- 돼지 종부나 이동은 서늘할 때 실시.
- 돈방내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창문 완전 철거.
- 분만책이나 스톨위에 물을 점적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군사시 사육밀도를 평상시 보다 적게 수용하여 밀사 방지.
- 신선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며,

2. 수태지 관리는

- 비타민 등 광물질을 보충 급여.
- 종부횟수를 무리하게 실시하지 말고,
- 충분한 영양공급과 신선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고,

3. 자돈관리는

- 새벽에 보온에 신경쓰고,
- 돈방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돈방과 배뇨로의 배수관리 철저.
-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를 배출하여 돈방내 쾌적한 환경 조성.
- 신선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며,

4. 육성비육돈 관리는

- 정상시보다 평당 사육두수를 10% 이상 줄이고,
 - 청소와 소독철저로 생산성 유지.
 - 돈사내 신선한 공기 유통 (송풍기나 환풍기 설치).
 - 사료급여는 아침저녁 서늘할 때 급여.
 - 돈방내 안개분무시설과 단열처리 설치.
 - 신선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무엇보다도 돈사내 온도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한 바, 돈사

내 송풍장치와 안개분무시설을 한다든지 돈사 지붕 위에 스프링쿨러 장치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16mm PVC관을 이용하여 15cm 간격으로 3mm의 직경으로 양쪽으로 구멍을 내어 지붕용마루에 설치후 수도관과 연결하여 태양열에 의한 열전도를 막아 주는 응급조치가 필요하겠다.

한편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매시간마다 수도물을 이용하여 돼지몸에 물을 뿌려 주는 작업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금년의 흑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가 좀더 적극

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며 더욱이 올해와 같은 흑서가 내년에 또다시 안온다는 보장은 없다. 돼지도 다른 가축과 같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정한 온도 이상(성돈인 경우 27℃ 이상) 6일간 지속되면 그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사양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특히 번식돈은 흑서기의 심한 스트레스로 생리 리듬이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이므로 능력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돼지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